

3. 인문_추론의 정당화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혹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고전소설_ 정을선전

정 승상의 아들 을선은 유 승상의 딸인 추연을 보고 상사병이 든다. 정씨 집안의 청혼으로 두 사람은 혼약을 하게 되는데, 계모 노씨가 추연을 시기하여 사촌 오빠를 시켜 추연을 모함한다. 을선이 떠나고 억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추연은 혼령이 되어 배회하고, 추연이 살던 익주는 폐촌이 된다. 을선은 추연의 유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추연의 혼령을 만나 추연을 회생시킨다. 추연은 충렬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초왕의 딸인 정렬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한다. 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충렬부인을 오해 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충렬부인을 죽이려 한다.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부인은 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본 을선이 집에 돌아와 진상을 밝혀내고 정렬부인 조씨를 처벌한다. 을선은 충렬부인과 아들을 구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하여 원귀가 된다.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 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반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 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뵈옵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 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유모가 말려 왈,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 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로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이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시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어 이 연유를 천자께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서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충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비를 모르고 남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매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시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않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